

밤이면 마을은 섬진강에 안겨 잠든다

박 한 열

해가 지자 세상일이 버거워 강가까지 내려온
마을들 모두 강물 속으로 들어가
비우는 일이 얼마나 찬란한가 몸소 보여준다
물 속 안긴 집들이 하나둘 등불 켜들고
가슴 깊이 묻고 살아온 날의 얼룩을 씻기면
은하수 쪽배 타고 내려온 나이 지긋한 별들이
골목마다 흰 사연을 위로해 보지만 오히려
별들마저 침묵을 배운 듯 고요를 입에 물고
물밑 아득 가라앉아 따사한 눈빛만 깜박거린다
스스로 강의 품속으로 들어간 이에게만 집이 되어주는 강
누워서도 잠들지 못하는 마을을 위해
세상 밖 떠도는 바람을 불러
젖은 마을의 어깨 다독여 줄 때도 있다 그때마다
지리산 허리 소리없이 걸어나온 조금달이
물푸레나무 가지에 기대앉아
섬진강보다 낮게 살아가는 마을의 잔등을 다독이다
새벽이 올 때까지 집과 어둠 한데 열려 강물이 되는 저,
기막힌 내력을 듣고 간다
넓어진 강 하구 피어나는 물안개가
옆구리 걸리는 마을의 꿈을 포근하게 덮어주는 강기슭
선잠 갯 암두꺼비들 목울대 가득 어둠을 삼켜 해를 잉태한
아침이 떠오른다.